

광주 '영웅' 기리는 '명예의 전당'에 성범죄자가 웬말

광주시청 1층서 제막식...267명 헌액 지역 경제 물의 빛은 일부 인사도 선정 '선정위' 신설...관리 기준 등 마련 필요

광주시가 공동체에 헌신한 '영웅'들을 기리기 위한 명예의 전당을 개관했다. 하지만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인사 중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성추행이나 지역 경제 악영향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인물들이 포함돼 있어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

체들을 중심으로 가장 '선정 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선발 기준과 선발 후 관리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청 1층에 광주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기리기 위한 명예의 전당이 문을 열었다"면서 "이날 오전 이영섭 시장,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구제길 광주아너소사이어티회장, 윤택립 광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명예의 전당은 사회공

헌자를 예우하고 시민들에게 사회공헌활동을 공유해 광주지역의 사회공헌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으며, 총 3개 구역으로 꾸며졌다.

첫 구역에는 1987년부터 매년 사회봉사와 학술, 예술, 체육, 지역경제진흥 등 5개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단체를 발굴·시상하는 '시민대상' 수상자의 이름이 새겨졌다. 현재 이 구역에는 역대 시민대상 수상자 153명이 헌액돼 있으며, 향후 수상자를 헌액하기 위한 자리도 마련됐다.

두번째 구역에는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을 위한 공간을 조성했

다. 이 공간에는 광주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114명의 이름이 헌액돼 있다. 세번째 구역은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과 연대를 실천하며 따뜻한 울림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시민을 발굴해 채워나가기로 했다는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인물 중 일부는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는가 하면 투자 등을 명목으로 많은 피해를 양산하는 등 지역사회에 파문을 끼친 전적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놓고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목숨을 걸고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

과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5·18 등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진정한 영웅이 아니다"면서 "이들의 이름 대신 성추행 범죄자 등을 영웅화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시민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철저히 배제하고, 행정이 주도해서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영웅화하는 게 옳은 지부터 되새겨볼 일"이라며 "특히 시민을 대표하는 영웅을 헌액하는 일이라면, 최소한 선정 전과 선정 후 일정 수준의 자격을 꾸준히 검증하는 절차 정도는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전남도, 코로나 전담요양병원 지정... '밀집완화 병실' 운영

광양우리병원, 음압시설·CCTV 설치·돌봄 인력 추가 채용

전남도가 광양우리병원을 코로나19 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하고 요양병원 코로나 19 확진자들에 대한 밀집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요양병원 67개소에서 180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즉각적인 확진자 분리 입원과 함께 밀집도를 낮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현실이다. 실제로 환자 대부분 외상에 기저질환이 있는 요양병원의 특성상 의뢰서비스와 돌봄 서비스가 동시에 가능한 의료기관이 사실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중앙수습대책본부로부터 광양우리병원을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받았다.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에서 확진이 잇따라 이어지는데 전남도내 요양병원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위기가 고조된데 따른 조치다. 현재 광양우리병원은 음압 시설, CCTV 등 시설 설치와 함께 돌봄 인력을 추가 채용하고 있어 오는 18일부터 일부 병동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기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3개 의료원 병상에 여유가 있어 요양병원의 확진자 발생 시 이곳에 우선 입원 조치하고, 광양우리병원은 자가격리가 필요한 접촉자 위주로 14일간 돌봄 계획이다. 이어 각 병실에 음압시설 등을 설치하고 병원 근무 의료진의 방호복 착용훈련 및 기존 전담병원 현장실습도 이어가는 등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이 운영되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철저히 대비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특고·프리랜서 3차 지원금 22일부터 신청

5만여명에 1인당 100만원...소득 감소 등 요건 확인시 지급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3차 지원금 신청을 이달 22일부터 받는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2020년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자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제외)	2월 말 1인당 100만원씩 일괄 지급 (긴급 복지지원금 중 2020년 12월~2021년 1월 생계급여 수급안 세대주, 소상공인 바림역자금, 방문 돌봄 서비스 한시 지원금과 중복 수급 불가)

자료/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4일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안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3차 지원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이 사업의 지원 목표 인원은 약 5만명이고 1인당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 작년 10~11월 노무를 제공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이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공고일(이달 15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람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바림역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 관련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3차 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

3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2019년 연 소득이 5000

만원 이하이고 작년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 대상(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작년 1월, 10월, 11월 소득 중 선택 가능)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노동부는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2019년 연 소득,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 등을 기준으로 매년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이달 22일~다음 달 1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으로 받는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사람은 이달 28일~다음 달 1일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가 오프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노동부는 심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해 다음 달 말 1인당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한국학호남진흥원, 2대 원장

천득염 전남대 교수 임명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제2대 원장으로 천득염(사진) 전 전남대 교수가 14일 임명됐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지난해 11월 원장을 공개모집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원장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

와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후보자 2명을 추천했으며, 이사회의결을 거쳐 최종후보자로 천득염 교수를 선정했다.

천 원장은 이날 한국학호남진흥원 이사장인 김영록 전남지사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업무에 돌입했다. 임기는 오는 2024년 1월 13일까지다.

고려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천 원장은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를 비롯 광주전남연구원 영산강연구센터 센터장,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아카데미 원장, 전통사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남대 연구석좌교수로 재임중이다.

천 신임 원장은 "고문헌 수집과 번역 등 기존의 과업을 이어가는 한편 남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해양과 섬, 민속, 마한, 의병, 불교문화 등에도 과업의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트럼프, 임기 7일 남기고 하원서 또 탄핵

상원서 최종 판가름...바이든 취임 맞물려 정국혼미 예상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13일(현지시간) 밤 하원에서 가결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서명을 한 후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종료를 불과 7일 앞둔 13일(현지시간) 하원에서 또다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지난 6일 지지자들의 의회 난동 사태를 부추겨 내란을 선동했다는 이유에서다.

탄핵 여부는 상원의 심리와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탄핵소추를 주도한 민주당은 오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 결론을 내자고 요구했지만 공화당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은 임기 출발점부터 탄핵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 속에 전염병 대응행 역제를 비롯한 각종 의제를 실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지난 6일 5명의 사망자를 낸 시위대의 의회 난입사태 선동 책임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소추안은 찬성 232명, 반대 197명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 222명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 의원 197명 중 10명이 탄핵소추에 찬성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하원에서 처리

된 것은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두 번째다. 미 역사상 재임 중 하원에서 두 번의 소추안이 통과된 대통령은 트럼프가 유일하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탄핵소추안 서명 후 "오늘 하원은 누구도, 미국의 대통령조차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초당적인 방식으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상원은 하원이 소추안을 넘기고 탄핵 재판을 담당할 소추위원을 지정하면 바통을 넘겨받아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한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상원이 곧바로 심리에 착수해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일인 20일 전에 결론을 내자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의 의회 일인자인 미치 매클널 상원 원내대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제안을 거부했다. 과거 세 차례 상원의 탄핵심리만 봐도 각각 83일, 37일, 21일이 걸렸다는 것이다.

매클널 원내대표는 오는 19일 상원을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는 아무리 일러도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일인 20일에야 상원의 탄핵 심리가 개시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연합뉴스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종 2천여주 아파트 조정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설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사용자, 포장도로 접 ㎡ 7만원

2. 상가건물

(1)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2) **광주. 동. 충장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동로 5층 승강기 유,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야시장 주동로 코너 점포 8간,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1)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담 포함) 건물 66㎡
벽돌조 스타브즈, 수리사용가, 산아래 마을 뒷 야미산 바라본 정남 매9천9백만원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수길 약 70m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담 포함), 덕진산자락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3) **화순 북면 옥리** 금호천 입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 18만원

국민공인중개사 대표점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플러스빌딩 211호**